

자료명	2026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엠바고	4월 9일(목)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4/8(수) 12:00부터)
문의처	경제정책팀 강민재 팀장(010-2612-6194, 02-6050-3442), 조혜민 연구원(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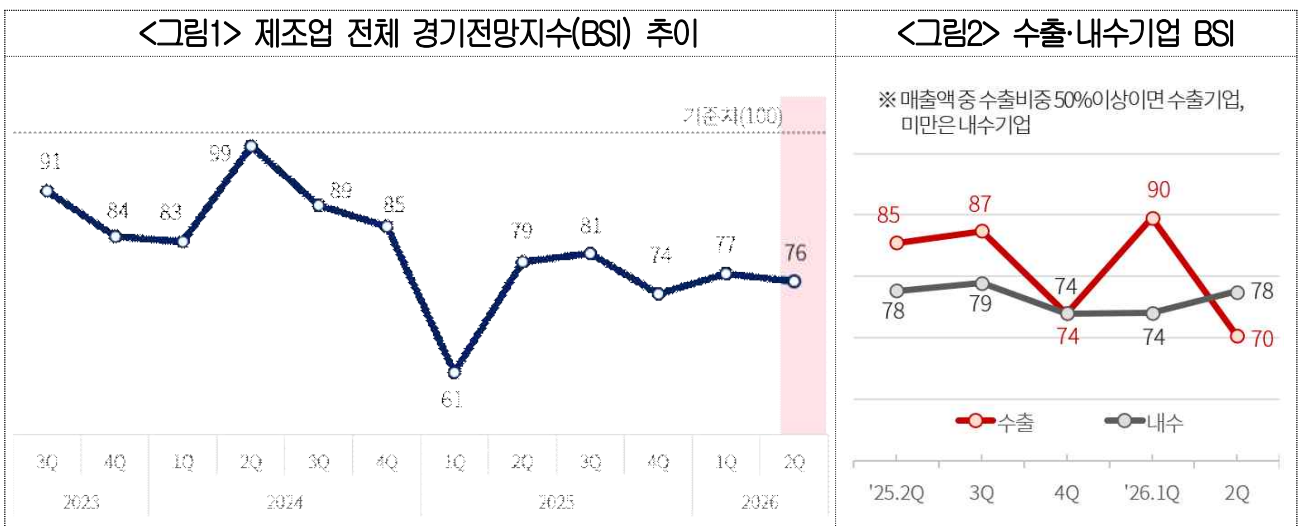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76'... 전분기 대비 1p ↓

- 전국 제조기업 2,271개사 조사.. 대외 불확실성에 수출(90→70) 하락, 내수(74→78) 소폭 상승
- 반도체(118), 화장품(103) 긍정 전망 우세... 중동사태에 정유·석화(56), 철강(64) 등 부정 전망
-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는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70%),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30%) 順
- 제조기업 61%, 상반기 투자 '계획대로 진행 중'... '계획보다 축소·지연'(35%)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 심리로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소폭 하락한 76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3월 18일까지 전국 2,271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는 직전분기 대비 1p 하락한 ‘76’ 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기업 지수는 78로 전분기 대비 4p 상승했고, 중동사태와 같은 대외 리스크가 겹치며 수출기업 지수는 70으로 전분기 대비 20p 하락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반도체(118), 화장품(103) 긍정 전망 우세... 중동사태에 정유·석화(56), 철강(64) 등 부정 전망

전체 조사대상 업종 중 ‘반도체’, ‘화장품’ 업종은 기준치 100을 넘으며 2분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호황을 맞은 반도체(118) 업종은 2분기 연속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화장품(103)은 전분기 대비 18p 하락했으나 여전히 경기 개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유·석유화학(56)과 철강(64)은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특히 중동사태로 인해 원료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정유·석유화학(56) 업종은 조사대상 업종 중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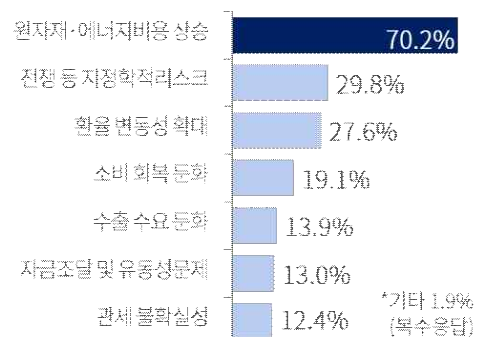
<표> 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업종 구분	2025			2026		전기비 증감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반도체	87	109	98	120	118	△2
화장품	97	113	69	121	103	△18
의료정밀	100	96	86	85	94	9
조선·부품	87	97	77	96	94	△2
기계	83	82	81	80	90	10
제약	92	109	87	95	87	△8
전기장비	71	80	93	72	85	13
비금속광물	87	51	56	40	79	39
전자·통신기기	89	93	84	85	77	△8
식음료	80	96	98	84	77	△7
자동차·부품	74	76	60	77	73	△4
철강·금속	59	67	63	66	64	△2
섬유·의류	79	79	73	63	63	0
정유·석유화학	84	72	63	77	56	△21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는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70%),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30%) 順


올해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대내외 리스크로 제조기업 70.2%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을 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29.8%), ‘환율 변동성 확대’(27.6%), ‘소비 회복 둔화’(19.1%), ‘수출수요 둔화’(13.9%) 순으로 응답했다.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 13.0%, ‘관세 불확실성’ 12.4%, 기타 1.9% 복수응답>

<그림3>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 요인



중동사태 등 대외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또는 연초에 계획한 상반기 투자계획 대비 현재 투자 진행상황’ 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1.1%가 ‘변동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고 답했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고 있다’ 고 응답한 기업은 3.8%였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고 밝힌 기업도 35.1%에 달했다.

기업들은 상반기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된 요인으로 ‘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 (2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 (24.4%),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 (23.9%), ‘자금조달 여건 악화’ (19.9%) 순으로 응답했다. <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 2.8%, '기타' 2.1%>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반도체 호조에도 통상 불확실성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 압력이 제조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경제계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참고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6. 3. 5(목) ~ 2026. 3. 18(수) *휴일제외 10일간

□ 조사 대상 : 전국 10인 이상 제조업체 2,600개사 (응답기업 : 2,271개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 이메일 및 FAX 조사 병행(지역상의 공동조사)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산출방식

$$\bullet \text{ BSI} = \left[\frac{\text{'호전예상'기업수} - \text{'악화예상'기업수}}{\text{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

• 전국 69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업종별·지역별로 집계하여 단순지수 산출

• 지수가 100 이상이면 전분기 대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

□ 응답자 구성(2026.2Q 기준)

• 기업규모 : 중소기업(81.3%), 중견기업(14.7%), 대기업(4.0%)

• 수출비중 : 내수기업(80.3%), 수출기업(19.7%)

*매출액 중 수출비중 50% 이상이면 수출기업, 미만이면 내수기업으로 분류